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01	03. 08	03. 15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최상우 형제	장래황 형제
성 경 봉 독	김정규 형제	최상우 형제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2월의 축복 인사 :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순종합시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성찬식 - 다음 주일(1일)은 성찬식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준비해주세요.
4. 나눔의 시간 - 이윤선, 최종열 성도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2월)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90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암 6 : 1 - 7(구p1280) (Amos 6:1~7)	최상우 형제
특별찬송 Sonderlied		오세란, 최상우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일어나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모스서 6장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안일함과 사치를 책망합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회개의 근거가 아니라 거짓된 평안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심판은 멀었다고 여기며 향락과 사치에 빠졌고, 공동체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는 서서히 위험에 빠지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은 영적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I 하나님은 거짓된 평화 속에 잠든 신앙을 깨우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마태복음 24장 42절은 “평안하다” 할 때 멸망이 이르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깨어 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영적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즐겁다고, 평안하다고 교만하여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류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II 깨어 있지 못한 신앙은 공동체의 고통을 외면한다.

지도자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사치했지만 “요셉의 환난” 곧 공동체의 아픔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깨어 있지 않은 신앙은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며, 풍요 속에서도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게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잠든 신앙을 깨우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III 깨어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아모스 6장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가? 나의 신앙은 공동체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각성을 위해 경고하십니다. 거짓된 평안에서 벗어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깨어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지금도 우리의 잠든 신앙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게으름에 방치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나는 지금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증거가 무엇인가?
2. 우리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